

자동차보험 절약할 수 있다.

지난 8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3.8%가 인상됨에 따라 보험 계약자들의 부담이 그 만큼 커졌다. 그러나 보험료 자율화에 따라 보험사간에 치열한 경쟁으로 보험료를 할인 판매하는 보험사도 나타나고 있어, 보험가입시 잘 따지고, 살펴보면, 어느 정도 자동차 보험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호에는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보험회사 비뉘보는 것도 좋다.

보험사간 치열한 경쟁으로 할인된 보험이 많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일단 만기가 됐다면 무조건 계약을 연장하는 것 보다는 일단 다른 보험사에서는 어느 정도 보험료를 적용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을 옮길 경우 5~10%까지 할인해 주는 보험사도 최근에는 나오고 있다.

인터넷 전용보험에도 싼 보험이 많다.

인터넷 전용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매우 싸다는 점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인터넷 전용상품은 리젠트화재(해동화재)가 일반보험보다 평균 8% 가량 보험료가 싼 상품을 현재 판매하고 있다.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경쟁이 격화될 것을 우려해 아직은 판매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값싼 인터넷 전용상품을 준비해 놓고 있어 머지 않아 인터넷 전용 자동차 보험상품이 확산될 전망이다.

가족이 함께 운전하는 승용차는 지주를 잘 선택하라

가족 중에서 보험가입 경력이 있는 사람을 차주로 등록하면 3년 동안 최고 120%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초보자보다 보험가입경력이 1년이면 80%, 2년이면 110%, 3년이면 120%나 보험료가 싸진다. 하지만 보험가입경력이 있더라도 사고 때문에 적용율이 130%가 넘는 사람은 차주로 등록하지 않는 것이 좋다. 형제들이 함께 운전하는 차라면 차주를 부모로 등록하고 오너드라이버(가족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로 가입해서 매년 35%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7~8년이 넘는 중고차라면 전담보로 가입하라

아주 오래된 중고차는 자기차량손해를 포함해서 전담보로 가입하면 전체 보험료의 5%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오래된 중고차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료가 아주 적으므로 전체 보험료에서 할인 받는 금액이 오히려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추가 보험료를 상쇄하

고도 남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지 않는 것보다 보험료가 약간 더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아주 적은 금액에 불과할 것이다.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을 조정하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을 무십코 5만원으로 선택한다. 그러나 자기부담금은 5만원뿐만 아니라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 도합 5가지 종류가 있다. 자기부담금이 5만원일 때보다 50만원일 때의 보험료는 차량가액 1천만원당 145,000원~162,000원이 더 싸진다. 따라서 차값이 수 천만원 이상 나가는 고급차들은 자기부담금을 올려서 보험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이란 자기차량손해 때에만 부담하는 것인데 어차피 수 십 만원 정도의 손해는 보험처리를 할 수도 없고, 도난사고나 전부손해일 때는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도 않는다.

보험가입 경력이 짧다면 보험처리를 신중이 하라.

자동차보험의 최초 가입자가 45만원의 차량 수리비를 보험처리 한다면 자비로 수리한 경우보다 무려 9년 동안이나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5년 무사고 경력자라면 할인율을 50%나 적용받는 상태에서 불과 4년 동안만 더 비싼 보험료를 내면 된다. 자동차보험 제도는 이렇게 똑같은 금액을 보험처리 하더라도 무사고 운전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경력이 짧은 4~5년 동안은 될 수 있으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평소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운전하라.

1999.5월부터 2000.4월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력은 2000.9월부터 보험료에 반영된다. 그러나 모든 교통법규 위반이 보험료 할증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만 보험료를 할증시킨다.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이 전혀 없는 운전자는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무보험 기간을 3년 이상 지속하지 말라.

무사고 할인율을 적용받던 보험가입자가 무보험 상태였다가 다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면 과거의 할인율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 다만 무보험인 기간이 3년 이상 계속되지는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과거의 할인율이 완전히 사라진다. 무사고 할인율을 인정받다가 무보험으로 된지가 3년에 임박했다면 단 1주일이라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다시 3년간 무사고 할인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생긴다.

단기간만 쓰다가 팔자려면 1년간 보험을 가입하라

단기간만 사용하다가 팔 차라면 보험기간을 1년으로 가입했다가 차를 팔 때 해약한다. 그렇게 해야만 손해를 보지 않는다. 만약 처음부터 1년 미만의 단기간으로 보험을 계약한다면 단기요율이 적용된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꼭 독립대리점을 이용하라

독립대리점이란 여러 보험회사와 동시에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는 보험대리점을 말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독립대리점을 이용하면 여러 보험회사들의 차이점을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어 보험료가 차별될 때에는 손쉽게 유리한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